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2008. 7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2008. 7

서 재 진 (북한연구실장)
임 순 희 (선임연구위원)
전 현 준 (선임연구위원)
정 영 태 (선임연구위원)
조 정 아 (부연구위원)
최 수 영 (선임연구위원)
최 진 욱 (선임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대내동향 | 2 |
| 1. 정치분야 | 2 |
| 2. 경제분야 | 11 |
| 3. 군사분야 | 19 |
| 4. 사회·문화·교육 분야 | 22 |
| III. 대외동향 | 29 |
| 1. 핵문제 | 29 |
| 2. 대외관계 | 30 |
| IV. 대남동향 | 34 |
| 1.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 34 |
| 2. 촛불시위 선동 및 편승 | 36 |
| 3. 통미봉남 | 37 |
| 4.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과 북한의 태도 | 37 |
| V. 종합 평가 | 39 |
| 1. 식량난에 대한 당국 차원의 대책마련 부심 | 39 |
| 2. 대남 비방공세의 유형과 의미 | 39 |
| 3. 생존전략의 변화: 대외관계 다각화 | 40 |
| 4.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 | 41 |

표 목 차

| | |
|--|----|
| <표 II-1>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도도('04년 이후, 6.16 기준) | 3 |
| <표 II-2> 제11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현황 | 9 |
| <표 II-3>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 12 |

I. 서론

- 금년 상반기 북한은 식량난 가중, 핵문제 진전, 북미관계 진전, 대남 비방 공세 지속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정세변화를 보임.
- 지난해의 수해 및 남한으로부터의 식량지원 중단 등으로 식량난이 심화되자 북한 당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바,
 - 이것이 대남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됨.
- 부시행정부 임기내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북한은 핵협상에서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핵문제 진전, 북미관계 진전, 남한의 정권교체에 때를 맞추어 대남 비방 공세를 시작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속도조절을 시도하고 있는 바,
 -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지, 단기적으로 끝날지 관심이 집중됨.
- 북한의 대남비방공세가 지속되던 와중에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관계가 더욱 긴장되고 있는 바,
 - 남북간 대화의 기회가 될지, 악재가 될지 관심이 집중됨.
- 이 보고서는 북한의 각 부문별 및 대남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북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II. 대내동향

1. 정치분야

가. '선군정치' 지속

- 북한은 체제위기 극복을 위한 통치이념인 '선군정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 『로동신문(6.9)』은 “선군정치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민족자주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주장함.
 - 지난 60년간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대해 위대한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했다고 강조
- 아울러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가 선군정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미관계 우선론', '실용주의', '비핵·개방·3000', '선제타격론' 등을 비난함.
 - 특히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공화국의 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강조
- 한편, 군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인민군 창건 76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거행함.
 - 북한은 인민군 창건¹⁾ 76돌을 맞아 중앙보고대회 및 각종 기념행

1) 북한은 '조선인민군' 창건일(48.2.8)을 인민군 창건일로 기념해 오다가 '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 활동을 위해 조직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32.4.25)로 변경하였으며, '96년부터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였음.

사를 진행하여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고 내부결속을 도모 (4.24, 중방·중앙TV)

- 행사에서는 김일성의 인민군 창건을 ‘인민의 운명개척과 혁명발전에서 역사적 사변’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계승한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함.
 - 대내적으로 ‘선군사상’ 이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군민일치’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룰 것을 촉구
 - 남한에 대해서는 ‘한미관계 우선론’, ‘북핵문제 완전해결’, ‘실용주의’ 등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 미·일에 대해서는 ‘3각 군사동맹구축’을 통해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나. 김정일 개인숭배 지속

- 김정일은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자신의 위대성 제고를 위해 경제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표 II-1> 김정일 경제부문 현지지도('04년 이후, 6.16 기준)

| 구 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
| 전체 횡수 | 37 | 39 | 52 | 24 | 48 |
| 경제부문 횡수 | 4 | 4 | 3 | 5 | 14 |
| 경제부문 비율 | 10.8% | 10.2% | 5.8% | 20.8% | 29.2% |

- 한편 북한은 김정일 당사업 개시²⁾('64.6.19) 44돌을 맞아 중앙보고

대회 개최(6.18, 중방), 노동신문 사설 게재(6.19, 평방) 및 각종 기념행사(6.17~20, 중방·중통) 등을 통해 김정일을 찬양하고 당을 중심으로 경제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함.

-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이 땅 위에 주체혁명의 새 시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위업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임.”
- “우리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임.”
- “군사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기본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은 우리당의 확고부동한 혁명적 입장임.”
- “지금으로부터 44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과 부강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의의 깊은 역사적 사변이었음.”(노동신문 사설, 6.19, 평방보도)

○ 이와 관련해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김정일 당사업 개시 44돌 경축 기념행사가 진행됨.

2) 북한은 김정일이 '64.6.19 당 조직지도부 지도원으로 당 업무를 시작한 것을 기념하여 30주년('94.6)부터 매년 「중앙보고대회」를 진행해옴. 김정일은 이후 당 비서('73),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74), 당 정치국 상무위원('80) 등을 거치면서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구축함.

〈경축 기념 행사〉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6.17, 중앙노동자회관)
- 여맹원들의 경축모임(6.18, 당창건기념탑 광장)
-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집회(6.18, 청진항)
-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6.19, 평양)
- 중앙예술단체예술원들의 무용종합공연(6.19, 청년중앙회관)
-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 경축종합공연(6.19,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 기타, 평북, 함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경축모임 진행(6.20)

- 북한은 이번 44돌 기념행사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예년 수준으로 진행한 가운데,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정당성을 찬양하고 현 시기 혁명과 건설을 위한 당면 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
 - 특히 노동신문은 당을 중심으로 경제 건설 매진에 총력 경주할 것을 촉구
- 한편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4.9)을 맞아 경축중앙 보고대회(4.8, '4.25문화회관') 및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위대성을 부각함(4.8, 중·평방·중앙TV).
 - 보고자인 김영일 내각 총리는 “김정일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마련하여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우리민족끼리의 이념과 의지로 새로운 통일시대를 펼쳤다”고 주장
- 이번 중앙보고대회는 예년과 같이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 물적 토대 구축’ 및 ‘선군정치의 위대성’ 관련 찬양에 주력하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방사업 강화, 경제전선의 강화 및 과학기술중시노선 등의 과업을 제시

- 향후 북한의 국정운영의 기본 중점이 경제 분야 발전에 놓여질 것임을 시사³⁾

○ 한편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를 위해 4월 초부터 웅변모임, 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각종 기념행사를 진행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5주년 기념행사〉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4.3, 당창건 기념탑 광장)
- 김형직사범대학의 외국유학생 위한 도서사진 전시회 및 영화감상회(4.7, 평양문화전시관)
-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중통기자와의 회견(4.7)
- 전국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4.7, 중앙노동자회관)
- 농근맹 중앙위 일꾼들 경축모임(4.7, 정주시 신천농장)
- 청년학생들의 경축모임(4.7, 청년공원 야외극장)
- 기록영화 ‘군사강국’ 상영(4.7, 인민문화궁전)
- 조선우표사 기념우표 발행(소형전지와 개별우편)
- 항일혁명열사 장울화 동지 가족 꽃바구니 전달(4.7)
- 여맹원들의 경축모임(4.8, 주체사상탑 광장)

다. 정치적 통합을 위해 ‘2012년 강성대국론’을 적극 활용

○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김일성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 개문의 해’로 설정한 후 북한당국은 이의 달성을 위해 김정일을 중심으로 철저히 통합할 것을 주문함.

-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를 경제건설 목표로 내세우면서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 증산, 경공업 부문 강화, 평양시

3) 13·14돌 기념행사 보고자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인 반면, 15돌 행사는 김영일 내각 총리가 진행함.

건설 및 농촌 살림집 건설, 보건 등 인민적 시책 강화 등을 우선 사업으로 제시

- 이후 지속적으로 2012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로동신문’(6.7)은 2012년을 목표로 진입하려는 ‘강성대국’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규정하면서 주민들에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난을 극복해 나가자고 독려

○ 한편 정치적 일탈자 단속을 위해 장성택 당중앙위 행정부장 중심의 부패척결 사업을 지속함.

- 최근 북한에는 외환벌이꾼이 중심이 된 ‘신흥부자’가 등장하였고, 이들은 주로 마약 등을 비법적으로 거래하여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론

라. 자연적·인위적 권력엘리트 교체

○ 북한 권력엘리트의 고령화로 인한 자연사가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력엘리트 교체가 진행됨.

- 려춘석(78)의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총장 임용(지기선 총장('07.7, 사망) 후임)
- 김룡연 차수 사망(3.20)

○ 업무중 실수나 정책실패로 인해 권력엘리트가 교체됨.

-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대표 경질
- 내각 무역상에 리룡남 기용(림경남 무역상 결질)
- 강능수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에서 소환(4.9)

- 인민군 장령의 승진인사가 단행됨.
 - 4월 15일 김일성 93회생일을 맞아 ‘인민군최고사령관 명령 제 0019호’에 의거 인민군장령 35명 승진(중장 2명, 소장 33명)

마. 최고인민회의 개최

- 북한은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를 개최(4.9)하여 2007년도 예산집행 결과와 2008년도 예산을 확정함(4.9, 중·평양, 중앙TV, 중통).
- 이번 회의는 대남관계나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언급 없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2008년도 사업 제시에 주력함.
 - 2008년도 중점과업으로 4대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수송)과 기초산업에 대해 특히 강조하였으며, 이는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
 -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인만큼 과학기술 부문의 예산도 6.1% 증액 편성하여 산업현장과 연계된 과학기술 개발에도 지속 주력할 전망
- 아울러 8~9월 중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

<표 II-2> 제11기 최고인민회의 개최 현황

| 회 의 | 주요 토의·결정 사항 |
|---------------------|--|
| 제1차 회의 (03.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장 재추대 ○ 국가지도기관 선거 ○ 핵문제 관련 외무성의 조치 승인 「결정」 채택 |
| 제2차 회의 (04.3.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3년도 사업정형과 2004년도 과업 ○ 2003년도 예산 결산 및 2004년도 예산심의 |
| 제3차 회의 (05.4.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4년도 사업정형과 2005년도 과업 ○ 2004년도 예산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심의 ○ 조직문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보선) |
| 제4차 회의 (06.4.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5년도 사업정형과 2006년도 과업 ○ 2005년도 예산 결산 및 2006년도 예산심의 ○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 추동 |
| 제5차 회의 (07.4.1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6년 사업정형과 2007년 과업 ○ 2006년도 예산 결산과 2007년도 예산심의 ○ 조직문제(김영일 내각총리 및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선출) |
| 제6차 회의 (08.4.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 2007년도 예산 결산과 2008년도 예산심의 ○ 조직문제(강능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소환) |

사. ‘4월의 봄 축전’ 올해부터 격년제로 개최

- 북한은 1982년부터 시작되어 연례적으로 진행되어 온 김일성 생일 (4.15) 맞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올해부터는 격년으로 개최하기로 함.
- 북한은 올해 ‘제1차 태양절 기념 전국예술축전’(4.10~18)을 개최하고 이 축전을 2년 주기로 정례화해 기존의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번갈아 열 것이라고 밝힘.

-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매년 김일성 생일맞이 축제가 진행되는 것이며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해외예술인들을 초청하는 등 대내외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다면 ‘태양절 기념 전국예술축전’은 주로 대내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것이라 하겠음.
- 북한은 ‘전국예술축전’이 “전인민적인 예술축전”임을 강조(3.23, 조선신보)

아. 전반기 북한 정치동향 종합 평가

- 선군사상 및 주체사상의 중요성이 강조됨.
 - 비록 선군사상 강조로 인해 수령중심사상인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가 주류를 형성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주체사상은 북한의 중심 가치체계(central value system)로서의 지위를 유지
- ‘김정일유고설’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정치적 위상은 견고함.
 - 지난 5월말 ‘김정일유고설’이 유포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김정일이 쿠데타, 민중혁명 등에 의해 유고될 가능성은 낮음.
 - 김정일은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48회(6.15 현재)에 걸친 현지 지도를 포함,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권력누수 현상은 없음.
 - 전체 공개 활동 48회 중 29%를 경제부문에 할애
 -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4.9) 15주년 중앙보고대회, 김일성 96회 생일(4.15) 중앙보고대회, 군부장령 35명 승진인사(4.15) 단행, 조선인민군 창건(4.25) 76주년 중앙보고대회 등을 통해 김정일 우상화

- 김정일 위상의 견고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으로 인한 일부 불만세력 무마를 위해 설득과 강제를 병행한 통치방식이 구사됨.
 - 경제난때문에 어쩔 수없이 과도기적으로 시장을 용인하는 또는 묵인하면서도
 - 북한내 과도한 시장주의 존재를 개탄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이완 방지를 위해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 시장의 과도한 확장방지를 위해 39세 미만 여성들의 시장참여 금지조치를 49세로 확대

(작성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2. 경제분야

가. 경제부문 개관

-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 진입을 위해 2008년에도 방위력 강화를 위한 보장사업을 최우선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신년 공동사설을 경제부문의 중심과업을 제시함.
 - 중심과업: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의 발전, 인민경제의 기술개건 추동 및 인민생활제일주의 관철
-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4.9, 만수대의사당)에서 2008년 경제부문 중심과업을 확인하고 2008년 예산을 심의·의결하였음.
 - 2008년 예산수입 및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각각 4.0%, 2.5% 증액 편성
 - 그러나 예산수입 및 지출계획의 증가율은 전년 대비 둔화, 다만

예산지출계획의 부문별 증가율에서 선행부문만 급증

- 2008년 들어와서도 북·중 무역은 급격히 증가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이 한층 심화되고 있음.
 - 2008년 1/4분기 북·중 무역총액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47.9% 증가(중국 해관통계)
- 2008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수급은 작황 부진,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등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임.
 - 식량 수요량은 변화가 없으나 2007년 수해로 인한 국내 생산량 감소(약 50만 톤)가 주된 원인
 - 시장 통제에 따른 식량 유통 문제 및 일부 매점매석 등도 주민들의 식량 조달을 제약

<표 II-3> 북한의 식량 생산량 및 수요량

(단위: 만 톤)

| 구 분 | 2000/01 | 2001/02 | 2002/03 | 2003/04 | 2004/05 | 2005/06 | 2006/07 | 2007/08 |
|-------|---------|---------|---------|---------|---------|---------|---------|---------|
| 국내생산량 | 359 | 395 | 413 | 425 | 431 | 454 | 448 | 401 |
| 수요량 | 613 | 626 | 632 | 639 | 645 | 651 | 650 | 650 |

자료: 농촌진흥청

- 2008년 상반기 경제부문에서 정책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일의 경제부문 현지도 강화, 인민생활제일주의 실천 독려, 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개건·보수 동향 소개, 자력갱생의 원칙과 개념변화 강조, 생산성과 및 개건·현대화 선전,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촉구, 철도협력 및 합영사업 추진

나. 경제부문 동향

(1) 경제부문 현지도 강화

-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들어와 경제부문에 대한 현지도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6.16 현재) 총 14차례 경제부문에 대한 시찰 및 현지도
 - 금년 전체 공개 활동(48회) 가운데 29.2%를 경제부문 지도에 할애
- 김정일 위원장은 발전소, 축산기지, 광산, 제철·제련소 등 경제 현장을 시찰, 현지도하였음.
 - 예성강발전소 건설장 시찰(1.6, 중방)
 - 자강도 강계담공장과 강계돼지공장 현지도 및 장강군 여러 공장 시찰(1.26, 중방)
 - 3월5일청년광산 현지도(1.30, 중방)
 -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지도(5.29 중통)
 - 흥남제련소 현지도(5.31 중통)
 - 대계도 간석지 건설장·신암협동농장, 북중기계연합기업소, 9월 제철종합기업소 등 현지도(6.13, 6.14, 6.16, 중통)

(2) 인민생활제일주의 실천 독려

-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 경공업성 부상 허택권은 조선신보와의 신년 인터뷰(1.3)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투자를 집중해 체험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조선의 인민생활제일주의’ 제목의 조선신보 연속 보도를 통해 주민생활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경공업부문에서 생산성과를 보인 주요 공장의 모범적인 생산활동을 소개
 - 이 연속보도에서 올해부터 국산 속성국수(인스턴트 라면)가 인민들에게 널리 공급될 전망”이라 보도(2.10)
- 인민생활제일주의의 실천의 우선 과제인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을 독려하고 있음.
- 신년공동사설 및 각종 보도를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다며 연초부터 농업을 독려
 - 농업성은 지난 10년간 감자농사 혁명방침에서 이룩된 성과를 바탕으로 신년공동사설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감자농사에 주력할 것을 요구(1.14, 중방)
 - 평양에서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55차 전원회의가 개최(1.30)
 - 농업혁명방침에 따라 각지 농촌들이 농사 준비에 성과(2.19, 노동신문)
 - 농민동맹결성 80돌 기념 중앙보고회를 개최(3.10)하고 당면한 먹는 문제를 해결 촉구

(3) 건설 및 개진보수 동향

- 북한은 각종 수력발전소 건설 동향과 관련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음.
-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금야강발전소 등 건설공사 진척(1.12, 중방 등)
 - 영월발전소(2005년 10월 언제 준공식 개최 이후 건설 동향을 보

- 도가 없었음.) 건설 동향 발표(3.10, 4.20, 평방)
- 원산청년발전소는 건설이 마감단계에 있고 2단계 건설이 진행
(5.17, 5.24~25, 중방)
- 이 밖에도 미루벌 물길공사, 평양시 살림집 건설 등의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음.
 - 미루벌(황해북도) 물길공사장의 2만산(m³) 발파(1.3)가 성공적으
로 진행(1.4, 중방)
 - 2012년까지 평양시에 10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을 추진(1.18, 조선
신보)
 - 창광봉사관리국 주도하에 평양 창광음식점거리 개건보수 공사
진행(5.20, 중방)

(4) 자력갱생의 원칙과 개념변화 강조

-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성공사례 소개, 21
세기 자력갱생 원칙 및 자력갱생의 개념변화를 강조하였음.
 - 조선신보는 ‘자력갱생의 구현 제일선기업의 경영술’ 제목의 4회
연속 보도를 통해 현장 성공사례 소개 및 현장사례를 통해 자력
갱생의 개념변화 강조
 - 은률광산을 ‘군중사업에 의한 자력갱생’, 평양 3.26전선공장을
‘실리보장의 자력갱생’의 성공사례로 소개
 - 또한 ‘세계속의 조선, 경제의 선택은 자력갱생’이란 조선신보 기
사(1.9)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여 質 중시, 과학기
술 발전, 실리추구, 대외경협을 골자로 하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

(5) 생산성과 및 개진·현대화 선전

- 북한은 생산성과를 매달, 분기말에 발표하고 있으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
 -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총 공격전을 벌이고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일꾼들이 1월에 좋은 성과를 수립(2.3, 중방)
 -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2월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3.4, 3.6, 중방·평방)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1/4분기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4.8, 중방)
 - 석탄공업성 아래 각지 연합기업소들이 4월 계획을 초과 수행(5.1, 중방)

- 공장, 연합기업소 등에서 생산공정 개진 및 현대화 등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음.
 -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공정 개진·현대화 성과(2.20, 조선신보)
 - 자강도, 양강도 임업관리국 산하 임산사업소들의 통나무 생산에서 혁신(2.20, 2.22, 중방)
 - 천리마제강연연합기업소에서 전기로 기술개진 대보수작업 추진(3.28, 중방)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의 생산 공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진, 현대화사업 추진(5.8, 조선신보)

(6)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촉구

- 북한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최신 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화 실현을 경제강국 건설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 중시노선 관철

을 강조함.

- 각종 매체를 통해 1월 중 과학기술과 생산현장의 연계·적용사례를 집중 보도
 -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투쟁은 과학과 기술 없이는 성과를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중시노선의 철저한 관철을 촉구(1.8, 중방)
 - “공화국 60년 역사 속에서 과학기술은 사상·총대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의 3대 기둥의 하나로 위력을 떨치고 있다”고 보도(5.31, 노동신문·중방)
- 과학자·기술자 표창, 과학기술축전 개최 및 기술혁신 성과 등을 선전하였음.
- 인버터 기술의 적극적인 보급을 위해 인버터센터에 전력전자기술전시장 개업(2.28, 조선신보)
 - 전기를 20%나 절약할 수 있는 불장식용 다기능전기절약기 개발·도입(4.8, 조선신보)
 - IT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과학자·기술자들에게 표창 수여(4.30, 중방)
 - 평양 3대혁명 전시관에서 전국 400여개 단위 과학자·기술자·근로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23차 중앙과학기술축전 개최(4.28~5.2)
 - 전국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1990년부터 지난 18년 동안 150만 7,000여건의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강성대국 건설 구상에 기여했다고 기술혁신 성과 선전(5.22, 중방)

(7) 철도협력 및 합영사업 추진

-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철도협력 문제를 논의, 러시아와는 철도 현대화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음.
 - 철도상 김용삼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 (1.19~22)하여 양국간 철도협력 문제를 협의
 - 러시아 철도공사 대표단이 철도 연결 및 나진항 개발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방북, 북한과 러시아 철도공사는 나진-하산(55km) 간 철도협력 사업 관련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4.24, 이따르타스)

- 중국과의 합영회사 조업 및 설립, 프랑스 기업과의 합작으로 시멘트 공장 현대화 추진 등이 확인되었음.
 - 북·중 합영회사인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가 조업식(2.27)을 갖고 생산에 착수(2.28, 중통)
 - 북한과 중국이 공동 투자한 평양백산담배합영회사가 평양에 설립 (4.24, 신화통신)
 - 상원세멘트는 외국기업과 합작하여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프랑스 라파즈SA사는 상원세멘트와 합영계약을 체결하였던 오라스 품건설회사를 인수한 사실 확인(4.12, 조선신보)

- 이 밖에도 EU와의 경제관계, 대외시장 진출, 해외 참관단 파견 등을 보도하였음.
 - 국제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로 EU는 대북 경제관계 발전에 큰 관심을 표시(1.23, 조선신보)
 - 개성고려인삼화장품인 ‘은하수’의 대외시장 진출 구상(4.29 조선신보)

- 싱가포르에서 진행되는 2008 국제정보통신박람회(6.17~20)에 참관단 파견

(작성자: 최수영 선임연구위원)

3. 군사분야

-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사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음.
 - 이를 위해서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 및 군 관련 행사 참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음.
 - 김정일의 군 관련 행사: 776군부대 및 관하 구분대 시찰(1. 8, 중방), 군인가족 예술공연 관람(1. 10), 제375 연합부대 지휘부 시찰(2. 1), 제776 군부대 관하 대대시찰(2. 15), 제350 군부대 관하 중대 및 제776 군부대 관하 신입 병사 훈련 구분대 시찰(4. 6), 제493 군부대 직속중대(4. 6), 해군 제152 군부대 지휘부(4. 9), 제109 군부대 관하 포중대(4. 10) 및 제337 연합부대 지휘부(4. 10) 시찰
 - '08년도 상반기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은 4월에 집중(총 6회)되었으며 이는 군창건 기념일(4. 25)을 앞두고 군의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4월 이후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관련 보도가 거의 전무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실로 지적됨.
- 반면 군 관련 행사는 비정주년이 아닌 평년에 걸맞게 비교적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었으나 중앙보고대회는 훨씬 '전투적'인 내용으로 진행된 것이 주목됨.

- 작년의 경우 대규모 열병식 및 장비(미사일) 퍼레이드가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퍼레이드 없이 진행
 - 중앙보고대회 보고내용은 남한 친미사대 보수집권세력은 자주 통일시대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 남한 군부 우두머리 속에서 북 선제타격 폭언까지 올려나왔으며, 남한 군부 책동을 날카롭게 주시, 적들의 선제타격 움직임도 앞선 선제 타격으로 대응 할 만반의 준비 완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남한 신정부의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과장하면서 이에 대한 만반의 군사적 준비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내부 긴장조성과 함께 체제단속에 주력
- 특히 대남차원에서 북한 당국은 군사적으로 상당히 과격한 공세적 비난과 위협 태세를 견지하였음.
- 인민군 해군 사령부 대변인 담화(3.28)를 통해 합참의장 NLL 관련 발언을 비난하면서 대남 군사적 위협 공세를 폈음.
 “남조선 군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조선서해에서 언제 무장 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남조선 호전광들이 6·15 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계속 긴장격화로 나간다면 민족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이어 북한의 장성급군사대표 명의의 통지문(3.29)을 통해 남측의 합참의장을 겨냥한 “공개적인 선전포고” 등으로 다음과 같은 위협공세를 가하였음.
 “① 우리군대는 남측이 시도하는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위력적인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 할 것이며, ② 남측이 선제타격 폭언을 취소하고 사죄한다는 입장

을 밝히지 않으면 그것을 모든 남북대화과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③ 우리 군대는 당면하여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 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

- 이에 더하여 북한 당국은 중앙통신 논평(5.8)을 통해 남한 이명박 정권의 적대시 정책으로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격화되어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며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 전쟁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음.

- 북한은 남북군사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6.22)를 통해 3통합의를 포함한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대남 위협공세를 가하였음.

“북한은 남조선이 없이도 우리는(북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는 남조선이 과연 어떻게 되는 가를 두고 볼 것이다.”

○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공세와 대남 군사적 위협공세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

- 이를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남한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며,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대결전략을 점차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작성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4. 사회·문화·교육 분야

가. 식량난 지속, 악화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 심화

- 지난해 집중호우(8월)와 12호 태풍 ‘위파’(9월)에 따른 수해피해로 인해 크게 악화된 식량사정이 올해 상반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면역력 약화로 인해 결핵, 파라티푸스 등 질병 확산 및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사망자 증가 추세
 - 수질오염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 확산 가능성 증대
 - 북한 전역에서 꽃제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각 도마다 주요 교통 요충지에 꽃제비들이 급증(5.15,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당국은 최근의 식량사정 악화와 관련해 김정일 위원장이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였다고 보도함(5.14, 중방).
- 대북 인권단체 ‘(사)좋은벗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해지고 있어 국제사회의 긴급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월, 6월 두 달 사이에 20만~30만 명이 아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함(5.8, 연합).
 - 1990년대에는 함경도와 황해도 등 일부 지역에서 기근이 시작됐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북한 내 전 지역에서 기아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발표

나. 체제이완·서구문화 유입 대비 사상교양 강화

- 북한은 시장화 진전, 자본주의 사상 유입 등에 따른 체제이완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대중이 스스로 리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원리적으로 깊이 있게, 은이 날 때까지 실속 있게 하여야 한다”며 사상사업 형식과 방법의 혁신 천명
 - “사상사업을 홀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변질과 붕괴로 이끌어가는 길”(1.13, 노동신문), “사회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생명이다”(1.23, 중방), “사회주의로 길은 자주와 평화의 길이며 민족번영의 길”(4.29, 노동신문) 등 사회주의 체제 고수를 강조

- 각종 근로자대회의 개최를 통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의 철저한 이행과 선군혁명사상을 강조함.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60차 전원회의(1.28),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37차 전원회의(1.29),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55차 전원회의(1.30), 농민동맹결성 80돌 기념 중앙보고회(3.10) 개최

-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주민들의 대미의식이 변화할 것을 우려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함.
 -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의 자그마한 요소도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한다”(3.23, 노동신문), “제국주의자들의 평화타령은 다른 나라와 민족을 사상정신적으로 무장해제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3.15, 노동신문)이라며 강대국의 평화론을 경계하고, 군사력 강화를 주장

- 미국의 식량원조 등을 의식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예측시키지 못한 나라들을 원조나 인도주의적 지원의 공간을 이용해 거머쥐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6.24, 노동신문)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이 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
- 한편,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응할 것을 촉구(6.25, 노동신문)

다. 정보유출과 일탈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

- 경제난 심화와 대외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 동요 및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검열을 강화함.
 - 2월 초부터 국경연선지역에서 정치학습을 통해 인신매매, 자식의 한국 도주, 중국·한국·일본으로부터 현금 수수, 손전화기를 통한 중국과의 연락, 마약 장사 및 밀수, 무직, 무단 숙박 등 7가지 비사회주의 검열 요강 전달(2.20, 오늘의 북한소식)
 - “도박은 사회적 마약”이라며 도박의 해악성 경고(1.18, 민주조선)
 - 빙두 관련 법적 효력을 높일 데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보안서에서 빙두 그루빠를 조직하여 빙두 등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빙두 3kg 이상 판매자 총살 등 빙두량에 따른 처벌 기준 명료화(1.9, 2.20, 오늘의 북한소식)
-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손전화기 사용, 도강, 간첩 행위 등 관련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6월 15일부터 평양시를 제외한 전국의 가정에서 시외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체신소를 통해서 시외전화를 하도록 조치(6.23, 오늘의 북한소식)

- 중국 등지로 정보를 유출하는 통로가 되는 손전화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시행

라. ‘뉴욕필하모닉교향악단’(뉴욕필) 평양 공연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선전, 홍보

- 북한은 뉴욕필을 평양에 초청 공연(2.26)을 실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홍보함.
- 북한당국이 뉴욕필의 평양 공연과 관련하여 정치적 의의를 크게 강조하는 것은 6자회담 진전과 북미 음악교류 등 일련의 정세 발전을 김정일 위원장의 음악정치, 음악외교 업적으로 선전, 과시하려는 의도임.
 - 뉴욕필 평양 공연과 관련한 수차례의 반복적인 보도와 생중계는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의도
- 한편 북한은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계기로 북한 문화예술의 해외 홍보 및 대서구 문화예술 교류의 적극화를 시사하는 일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선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런던 공연(9.4~15)이 예정되어 있음(3.10, 조선신보).
 - 북한은 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을 뉴욕필 공연에 이어 “음악으로 서방나라들을 매혹시키고 전 세계에 북한의 메시지를 보내는 커다란 사변”(3.12, 조선신보)이라고 평가하고,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 공연에 이어서 미국에서의 “답례공연”을 추진중에 있다고 발표

- 북한당국이 대서구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서구사회에 확산된 인권 탄압 국가, 테러지원 국가, 불량국가라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북한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님.

마. 베이징올림픽과 연계,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

- 북한은 8월 8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외국인의 북한 관광 특수에 큰 기대를 걸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 (6.5, 조선신보).
 -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대외 홍보 강화
 - 베이징올림픽 개막 4일 전인 8월 4일 아리랑 공연 시작
 - 저녁 시간대에는 ‘아리랑’ 공연, 낮 시간대에는 ‘번영하라 조국이어’ (정권수립 60돌을 기념해 새로 창작한 10만 명 규모의 집단체조) 공연 예정

바. ‘선군음악’ 창작 촉구

-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2008년 1호)는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음악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선군시대는 자기 시대에 맞는 음악을 요구하며 선군음악은 선군시대를 반영하게 된다”라며 선군음악의 창작을 촉구함.
 -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민대중의 투쟁의욕과 건전한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에서 무의미한 자연이나 노래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보여주는 음악은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길을 열어 주는 해독적인

- 작용을 한다”라며 음악에서 “혁명성”을 강조
 - 선군음악은 “선군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에 이바지하는 음악”이라고 정의

- ‘선군음악’ 창작 촉구는 선군음악 창작, 보급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음악정치를 과시하는 한편 주민들의 사상적 이완을 방지하고 체제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님.
 - 선군음악은 음악에서의 선군사상 구현을 의미

사. 정보화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영어 및 컴퓨터교육을 소학교 3학년부터 실시할 예정임.
 - 이는 종래에 중학교 1학년부터 실시되었던 것을 2년 앞당긴 조치로,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시행
- 특히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회화 중심으로 영어교수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90년대 말부터 영국문화원과 UNESCO 등으로부터 영어 교수법 및 교재 지원, 교사 파견, 워크숍 개최 등의 교육지원을 받는 등 국제적인 영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 특히 2007년 말 영국 문화원을 통해 2명의 영국인 영어강사가 북한에 파견되어 현재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 등 평양의 3개 대학의 교수와 학생 450여명을 대상으로 영어회화 교육법 강의(3.6, 연합)

아. 소결

- 생활고 심화, 북미관계 개선, 대외교류의 확대에 따른 체제이완이나 사상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 침투를 경계하고,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각종 비사회주의적 일탈행위와 정보유출에 대한 통제도 지속될 것임.

- 뉴욕필공연 이후 서구사회와 문화예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음악외교 업적을 과시하고자 할 것임.

(작성자: 임순희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부연구위원)

Ⅲ. 대외동향

1. 핵문제

- 2008년 북한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2단계 비핵화의 진전임.
- 2007년 10월 3일 북미간 합의된 2단계 비핵화 일정이 시리아와의 핵협력과 UEP에 대한 논란으로 이행되지 못하다가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두가지 핵심쟁점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짐.
 -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 핵협력에 대하여 미국이 북한을 대신해서 신고하고 북한이 이를 인지(acknowledge)하고 이의(challenge)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를 공식신고서가 아닌 북·미 비밀 의사록에 담기로 함.
- 북한은 5월 8일 미국측에 영변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한 핵관련 문건을 제출한 데 이어,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신고서를 제출함.
- 핵신고서 제출 하루 뒤인 6월 27일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발하는 장면을 전세계에 생중계하는 이벤트를 연출함으로써 비핵화 진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줌.
-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보상으로 50만톤의 식량원조를 발표(5.17)하였고 북한의 핵신고 하루뒤인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지 및 테러지원국 해지를 의회에 통보(6.27)함.

-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미국 보수파의 반발을 의식하여 부시 행정부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으나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8.11)될 예정

(작성자: 최진욱 선임연구위원)

2. 대외관계

가. 핵문제를 매개로 북미관계 개선에 ‘올인(all-in)’

-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 및 경제난 해결의 열쇠는 북미관계 개선에 있다는 판단하에 대미 ‘중심고리 전략’을 추진함.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뉴욕필하모닉교향악단을 평양에 초청하여 공연을 개최(2.26)함.
- 북한은 국가수반급의 공식방문 때와 같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통해 뉴욕필의 평양 공연을 사전에 예고하고 공연을 전후하여 관련 기사를 수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홍보함.
 - 공연 당일(2.26)에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하여 전 주민들이 시청토록 하였으며 CNN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도 생중계함.
- 북한은 각급 관영매체와 조선신보 등을 통해 뉴욕필의 평양 공연은 “새시대 개막의 서곡”이라고 평가함(2.26, 조선신보).

- 북·미 양 정부의 관심 속에 이루어진 평양 공연은 6자회담의 진전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세발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의 질서재편을 예고하는 사변
 - 뉴욕필의 공연은 “조선 인민과 미국 인민” 사이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도모하는 데 이바지 하였으며(3.8, 조선신보), 북·미 양자간 예술교류의 첫 걸음(2.26, 조선신보)
- 이러한 전략적 기조하에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 개문의 해’ 달성을 위해 핵문제를 매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매진한 결과 ‘4.8 싱가포르 합의’ 도출이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보하는 등 성과를 거둬.
- 북미관계 진전의 주요 일지는 다음과 같음.
- 2.19 : 힐-김계관 북경 회동
 - 2.26 : 미국 뉴욕필하모닉교향악단의 평양 공연
 - 3.14 : 힐-김계관 제네바 회동
 - 4. 8 : 힐-김계관 싱가포르 회동(4.8 싱가포르 합의)
 - 4.23 :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김계관 회동
 - 5. 8~10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방북 후, 북핵문건 18,822쪽 확보
 - 5.27~28 : 힐-김계관 북경 회동
 - 6.10~11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북핵불능화 논의
 - 6.26 : 북핵신고서 중국에 제출
 - 6.27 : 영변 냉각탑 폭파
 - 6.27 : 미국, 대북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지 및 테러지원국 해지 의회통보

나. 중국과의 선린우호관계 회복 노력

- 금년 하반기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함.
- 대미관계 개선에 ‘올인’한 이유는 북핵실험('06.10.9) 이후 대북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술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함.
- 특히 북경올림픽 개막(8.8)을 앞둔 중국의 약점을 활용하여 핵계임을 벌임으로써 중국의 대북 지원을 얻어내는 ‘경쟁외교’를 구사함.
- 결국 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을 북한에 보내(6.17~19)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 및 북경올림픽 성공개최 협조를 조건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약속받음.
 - ‘시진핑’은 김정일 위원장을 예방, ‘후진타오’ 주석의 구두 친서 전달 및 북한 창건 60돐 축하
 -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경제기술협조협정’을 통해 식량, 비료, 원유 등 향후 대북원조계획에 서명 한 사실

다. 일본에 대한 실리외교

- 2002년 10월 ‘일본인납치 시인·사과’ 이후 일본의 대북 강경책이 구사되자 북한은 납치자문제 논의 회피는 물론 6자회담에서까지 일본을 배제함.
- 그러나 북·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함께 북핵문

제 타결 이후 일본의 대북 배상금 획득이라는 실리를 위해 일본과 대화를 재개함.

- 미국은 일본인납치자문제 해결을 테러지원국 해제와 연계해서 북한 압박
- 북일관계 개선 시, 일본의 대북 보상금은 100억불 정도로 추정

○ 북한과 일본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회담 북일국교정상화 실무회담(6.11~12)에서 중대한 합의를 도출함.

- 북한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재조사하고 항공기 요도호 납치범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대신,
- 일본은 북측의 합의에 대북제재 부분해제를 통해 만경봉-92호의 재입항을 허용함으로써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동포들의 방북 길을 개방

○ 조선중앙통신은 “조(북)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두 나라 사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염원과 이익에 맞는다”(6.23)며 북·일 관계정상화의 당위성을 부각함.

(작성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

IV. 대남동향

1.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집중 공격

- 북한의 대남 정책은 통미봉남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전통적인 통미봉남과 달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공격하면서도 절제된 긴장고조와 당국·비당국 분리의 특징을 보임.
- 특히, 비핵·개방 3000,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비판함.
 - 이명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의 대북정책 발언을 실명 거론하여 비판
- 북한은 군사적 시위 등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절제된 행동을 통해 남한내 여론의 지지를 사고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고 함.
 - 북한이 포사격시(3.1) 북방한계선을 넘지 않은 것이나 미사일 발사시(3.28) 그 방향을 북측으로 한 것 등은 절제된 행동의 예
-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기 보다는 개성공단 철수대상을 당국요원으로 국한하고, ‘군사분계선 통과와 전면 차단’ 조치도 당국자만 대상으로 하는 등 당국·비당국을 분리함.
-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한내 촛불정국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비난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임.

- 조평통 서기국 보도 등을 통해 『2008년 통일교육지침서』를 ‘반북 대결 고취안’, ‘반통일교육안’ 등으로 비난(5.34, 중통)
 - 남한의 촛불시위 등으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 몰린 것을 최대한 활용
- 북한은 『남북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3통 합의를 포함한 그간의 남북합의를 이행할 것을 주장(6.22, 중통)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차질을 암시하기에 이룸.

나.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제기에 강력히 반발

-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3.3)한 것에 대하여 북한은 강력히 반발하였음.⁴⁾
 - 제네바 북한 대표부 최명남 참사관은 답변권을 통해 “무책임한 발언에 따른 모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함.
 - 조평통 대변인이 담화(3.6)를 내고 “반민족적 망발”, “용납 못할 엄중한 도발”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의 새 정부를 ‘독재정권들의 후예들인 보수집권세력’이라고 강력히 비난함.
- 북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비트 문타폰(Muntarbhorn)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3.27)에 찬성하였으며 이후 북한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함(4.12, 중·평방 등).

4) 유엔인권이사회 한국대표로 참석한 외교통상부 박인국 다자외교실장은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추종해 반복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인권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
- 북한은 한국정부의 인권거론이 체제와 제도를 흔들기 위한 것이며 남북간에 적대감과 불신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평가함.
- 아울러 인권문제는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강점하에 놓여 있는 남조선에 있으며, 남조선이야말로 최악의 인권 불모지라고 역공을 함.

2. 촛불시위 선동 및 편승

- 북한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이로 인해 촉발된 남한내 촛불시위에 적극 개입하여 선동함.
 - 한국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 방침을 “용납못할 범죄행위” 등으로 비난·보도(5.7, 민주조선)
 - 북한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촛불집회 지지 표명 및 반정부 투쟁을 선동(6.7, 중통 등)
 - 북한은 「민화협 대변인 담화」를 통해 ‘촛불집회 배후론’을 ‘우리 정부가 탄압 구실을 찾기 위한 불순한 기도’ 등으로 비난(6.20, 중통)
- 촛불 시위에 편승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임(6.13, 노동신문).

3. 통미봉남

-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는 적극적이거나 남한과의 관계에는 소극적이거나 속도조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빌미로 비방공세를 시작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속도조절하는 추세를 보임.
 - 북한은 제2의 6·25전쟁, 제3의 서해교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등 대남비방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시정연설(7.11)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인정하고 전면적 대화를 제의하고 식량난에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북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거부

4.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과 북한의 태도

-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사건(7.11)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더욱 긴장됨.
- 우발적인 사건인지 사전에 계획된 사건인지 관계없이 북한은 한국에 사과의 가능성을 차단하며 한국정부의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와 후속 강경조치에 강력히 반발함.
- 사건 직후 북한은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남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함으로써 배수의

진을 졌다고 할 수 있음.

- 우리의 현장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까지 관광중단을 선언함.

(작성자: 최진욱 선임연구위원)

V. 종합 평가

1. 식량난에 대한 당국 차원의 대책마련 부심

- 식량난과 이로 인한 사회질서 동요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김정일은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강화하면서 식량난 민심안정에 주력
 - 농사에 역량을 집결하라고 간부 및 주민 독려 강화
 - 아사자 발생을 막기 위해 지역단위별 당적 체계를 통하여 대책마련 지시
 - 중국, 러시아, 유럽과의 경협 확대 노력
 - 미국 및 남한의 경제봉쇄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전 및 사상교양 강화
- 미국의 50만톤 식량지원 사실을 신속히 보도·홍보한 것은 식량난으로 인한 민심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음.
 - “미국에서 장군님의 위엄과 인민군의 위력하에 평양에 와서 50만톤의 식량을 6월부터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의 내각지시문을 하달(5.21, 오늘의 북한소식)

2. 대남 비방공세의 유형과 의미

- 북한의 대남 압박의 유형은 다음의 몇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면 거부 및 비난으로 이명박 정부 압박
 - 민관분리 대응을 통한 이명박 정부 압박

- 남남갈등 조장을 통한 이명박 정부 압박
- 통미봉남 시도를 통한 이명박 정부 압박
-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빌미로 대남비방공세를 취하는 의도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화적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압박
 -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가시화되자, 비방의 타깃을 미국에서 남한으로 바꾸면서 내부체제통합에 활용

3. 생존전략의 변화: 대외관계 다각화

- 북한은 핵문제 진전, 북·미관계 개선의 추세를 활용하여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과 동시에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교류협력을 다각화하는 추세를 보임.
 - 남한에의 의존성 완화 및 대외관계 다각화 기도
-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임.
 - 비핵화 2단계가 종료되면 북한은 북·미 사이에 가시적인 이벤트를 전개하여 대외개방의 이미지를 만들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EU 국가들의 북한 진출이 이미 눈에 띄게 증가
 - 최근 프랑스 자본의 유경호텔 건축 재개
- 북한은 북·미관계 개선이후 북·일관계 개선과 더불어 서방국가들과의 국제협력관계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남한에 의존하던 지난 10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폭넓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4.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 발생과 남북관계 전망

-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지 10년만에 처음으로 7월 11일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남북간의 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음.
 - 사건에 대한 우리측의 진상조사 요구를 북한이 거부하고 사건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
- 금강산 피격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북한이 국제무대서 ‘10.4선언’ 이슈화 시도로 다시 남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함.
 - 북한은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금강산 피살사건 문제제기에 대한 맞불전략으로 시작한 ‘10.4선언’ 이행 압박 전략을 국제사회에서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7월 싱가포르 ARF회의에 이어 테헤란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와 9월 유엔총회에서 ‘10.4선언’의 이행 문제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의 국제무대에서의 대남압박 전략은 지난 10년간의 남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로 경협의 범위를 다각화하려는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작성자: 서재진 북한연구실장)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정기회원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기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회원의 구분

- 1)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2)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가입방법

- 1) 「도서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2)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3)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가입기간

- 1)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회원으로서의 자격유지
- 2)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하실 분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4. 회원의 특전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15-20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협동연구총서(연평균 5-10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5. 회원가입 문의

- (142-728)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전화: 901-2559, FAX: 901-2547)

※ 가입기간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8-10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화 : 901-2525(代), 팩스 : 901-2544
인쇄처 양동문화사 전화 : 2272-1767
인쇄일 2008년 7월 일
발행일 2008년 7월 일
